

新傾向派 詩論의 形成

—石松 金炯元을 中心으로—

韓 啓 傳*

1

신경향파 문학이 일본 사회주의 사상운동과 러시아 文學에 대한 八峰의 체험에 의해서 발흥되었다는 견해에는 많은 연구가들의 동조를 얻고 있다. 실제로 八峰은 渡日後 1922~23년 사이 石川啄木, 麻生久, 中西伊之助 등 당대의 우수한 사회주의 사상가들과 직접·간접으로 접촉한 바 있고, 또한 러시아의 투르게네프와 불록 등 지식인의 사상에 관련되기도 했다. 비록 日本의 사회주의자들에 관한 기록이 八峰의 단편적인 회고에 나타날 뿐이지만, 최초의 시론 「프로므나드·상티망탈」에서는 투르게네프와 불록의 사상이 어느정도 깊이 있게 論及된 바도 있다. 여기서 숙제로 남는 것은 과연 신경향파의 등장에 있어서 외국 사상이 이와 같이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던가하는 점이다. 그러나 한 나라의 文化 및 文學現象이 외국사상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성취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거니와 더우기 한 사람의 주도하에 달성되었다고 보기는 더욱 곤란하다. 이에 따르는 실례는 쉽게 들 수 있다. 먼저 文學圈外의 경우부터 예를 들어보자. 신경향파 문학이 등단하기 이전부터 3.1운동에 의해 발단된 文化的, 民族的 대각성에 따르는 각종 사회주의 단체들이 발흥되었으며, 이와 때를 맞추어서 「개벽」, 「現代」, 「新民公論」 등 각종 綜合誌가 발간되었고, 나아가 여러 文化運動 및 社會運動이 활발하게 展開되기도 했다. 文壇內의 경우론 金炯元의 활동이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 石松의 文學活動은 1920년에 發表한 詩 「民衆의 公僕」과 論文 「朝鮮文學 建設의 急務를 提唱함」으로부터 시작해서, 「民主文藝小論」(1925)에서 일단 끝난

* 人文大 副教授(國文學專攻)

다. 그 후로도 간간히 작품활동을 계속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평가의 대상이 될만한 작품은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 石松의 작품은 처음부터 詠嘆과 感傷이 풍미하던 詩壇에 異端者로 등장 民衆의 詩論을 提唱하는데 의의가 부여된다. 다음에 휘트먼의 民主主義詩論을 受容해서 사회주의 사상과 관계를 맺고 신경향과 시론의 형성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본고에서 검토될 구체적인 항목은, 첫째 石松의 民衆詩論과 당대의 사회주의 사상과의 맥락, 둘째 신경향과 시론의 형성에 있어서 石松의 시와 시론이 끼친 영향, 셋째 신경향과 시론이 계급론으로 무장될 때에 石松의 詩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등으로 나뉘어 논술될 것이다.

2

초창기의 신경향과 시론에 있어서 石松의 역할을 밝히기 위한 작업으로는 첫째 石松의 民衆에 대한 개념이 W. 휘트먼의 시론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입고 있다면, 그것이 신경향과 시론이 추구하고 있던 민중의식과 어떻게 접촉되었는가, 둘째 비록 충분한 자료를 남기진 못하고 있다하더라도 그의 생활기록이나 단편적인 발언 등을 통한 검토, 셋째 詩作品에 대한 分析 등이 무엇보다도 先行하여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石松의 詩가 미국의 민주주의 시인 W. 휘트먼의 시론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입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로써 확인된 바 있다. 20年代 벽두부터 W. 휘트먼은 한국 문단에 시작품의 번역과 시론을 통해서 알려졌으며 그 작업이 30년대까지 계속될 정도로 우리의 近代詩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다. 우리 문단에 W. 휘트먼을 소개한 人物로는 石松 외에, 石松보다 일찍 W. 휘트먼의 시작품을 다수 번역한 바 있는 吳天錫은 물론, 朱耀翰, 정지용 등 다수의 人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에 비해서 石松의 W. 휘트먼 紹介는 비교적 정확했다는 평가가 나타나 있다.¹⁾ 石松의 W. 휘트먼 紹介에는 그의

1) 金容稷, 韓國現代詩研究(一志社, 1974.), pp. 58-90.

有名한 詩論 중의 하나인 「民主文藝小論」(1925)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나름대로의 몇 단계를 거쳐 발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文學과 實生活의 關係를 論하여—朝鮮文學建設의 急務를 提唱함」이라는 東亞日報(1920. 4. 20)에 게재된 그의 첫 論文으로부터 그의 W. 휘트먼 受容을 단계별로 살펴보고 나아가 신경향파 시론과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 論文은 당시 文壇을 풍미하던 消極的, 퇴폐적인 文藝思潮에 대한 反省을 제기하고 實生活에서의 文學의 效用性을 강조하는 일종의 교양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文學과 生活의 관계란 것도 신경향파 시론이 중요한 이슈의 하나로 제기하고 있는 생활문학처럼 이론적으로 주장되어 있지도 못하다. 더우기 이 論文에서의 W. 휘트먼 紹介는 論文의 末尾에서 「조선의 물스토이, 조선의 유—고, 조선의 와일드, 조선의 피레, 조선의 휘트먼이 나기를 切願하는 바이다.」에서 보듯이, 단지 휘트먼의 이름만을 引用하는데 그칠뿐 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論文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다음 몇가지 사실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첫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당시의 文壇에 대한 진단을 消極的이며 퇴폐적인 思潮에 젖어 있는 것으로 규정한 나머지 그러한 文壇現實에 대한 反省을 촉구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示唆하는 점은 그가 이때에 이미 휘트먼의 民主主義 詩論에 대해서 대강이나마 터득한 후가 아니었던가하는 추측이다. W. 휘트먼의 民主主義 詩論의 根幹은 단적으로 말해서 과거의 귀족주의 시를 타파하고 새로운 未來의 詩를 요구한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여기서 未來의 詩란 무엇보다도 민중을 위해서 민중에 관해서 쓰여진 詩이어야 하며, 전통적인 운율법으로부터 탈피한 시일 것은 물론, 素材의 자유로운 선택까지 요구하는 그런 詩이어야 한다. 이 시기 石松과 휘트먼 사이의 또 다른 접축은 詩 「民衆의 公僕」(동아일보, 1920. 4. 2)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詩가 비록 東亞日報 創刊을 축하하는 祝詩의 형식을 빌고 있기 때문에 民衆이 중요한 素材로 등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할

지라도, 〈民衆의 앞에 희생이 올시다／아! 나는 스스로 나를 죽이고／民衆으로 살으려는 나의외다〉와 같은 대목에서 볼때 여기서도 휘트먼의 영향을 부인할 수 없다.

다음으로 石松의 시론에서 골격이 되는 「力の詩」가 이 論文으로부터 배태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나는 朝鮮 新文學建設의 急務를 提唱한다. 우리의 등신만 남은 육체에 血液을 注入하고 生의 영혼을 復活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形骸만 남은 生活에 內容을 주고 新面目을 꾸미기 위하여 진정한 의미의 文學을 建設함이 急務인 것을 절규한다. 感情의 血液이오 生命이다.²⁾

金石松은 조선 신문학 건설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로서 〈등신만 남은 육체에 血液을 注入시키고〉, 〈形骸만 남은 生活에 內容을 줌〉으로써 生의 영혼을 復活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 진술은 그로부터 2년 후 八峰이 月灘에게 준 편지의 내용인 「도피적 푸르구름한 상아탑 속의 영탄이 熱을 띄워오기를 비는 것이 올시다.」와 아주 방불하다.

石松의 휘트먼과의 관련은 1922년 「개벽」誌를 통한 휘트먼의 詩를 번역하면서부터 더욱 활발해진다. 여기서 번역된 작품의 수효는 「草葉集」에서 골른 6편이며, 그 앞에 휘트먼에 대한 紹介의 序文이 붙어 있는 점이 特記할 만하다.

윌트·윌트맨! 나는 이렇게 感嘆的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할 수 없이 그를 敵仰한다 함은 그의 詩가 美의 詩인 것보다도 力の 詩인 까닭이다. 그는 果然 '自然과 같이 寬大하고 強壯'한 詩人이다. 그는 透徹한 豫言者요. 先知者요. 引導者요. 未來를 위한 詩人이오. 人類의 向上前進과 共存共榮의 眞理를 確信한 使徒이다. …平民으로 나서 平民을 노래하다가 平民으로 죽은 點에 그 詩의 生命도 있는 것이다. …나는 다만 '民主詩의 先驅者'—從來의 規約를 함부로 無視한 '대담한 自由詩人'이라고 그를 부르고 싶다.

비록 한 페이지에 불과한 短文에 지나지 않지만, 이 序文의 내용은 W.

2) 金石松, 「文學과 生活의 關係를 論하야—朝鮮 新文學建設의 急務를 提唱함」, (東亞日報, 1920. 4. 20~24).

휘트먼 詩論을 거의 완벽하게 재현시켜 주고 있다. 그것은 石松의 이 序文이 啓蒙主義에 대한 열렬한 신봉자로서의 예언자로서의 목소리, 봉건주의시를 타파한 미래지향의 시, 모호한 사회주의 성격을 지니는 民衆主義의 글결, 형태상의 자유시 운동 등 W. 휘트먼의 詩論을 거의 완벽하게 集約시켜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石松이 강조하는 바는 휘트먼의 미래주의에 대한 낙관주의적 信念이라 할 수 있다. 前述한 바와 같이, 미래주의란 文學에 있어서 일체의 봉건주의를 타파하고 文學의 발전적 진보주의를 고양시킨다는 점에 그 주요한 의의가 부여된다. 뿐만 아니라 퇴폐주의가 文壇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당시에 石松이 「시가 광대함, 위대함, 현실을 읊는다.」는 휘트먼의 시론과 마주치면서 그로부터 크게 감동되었으리라는 점은 추측이 용이하다. 결국 휘트먼의 시가 「美的 詩인것보다 力的 詩」인 까닭에 「나는 이렇게 감탄적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할 수 없이 그를 敬仰한다.」라는 石松의 감격적인 찬탄이 나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石松이 강조한 「美的 시보다 力的 시」가 뜻하는 바가 위에서 개괄적으로 설명된 이상의 구체적인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石松에 의해서 휘트먼의 시론을 설명할 때에 사용한 「力的 藝術」 혹은 「力的 詩」는 그 후 신경향파 시론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으로 수용된다. 그 한 실례는 朴鍾和의 「文壇의 一年을 追憶하야」(개벽 31호, 1923. 1)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藝術은 「力的 藝術」이다. 가장 強하고 뜨겁고 매운 힘 있는 藝術이라야 할 것이다. 歌價의 戀愛文學 微溫的의 寫實文學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오뇌를 건질 수 없으며 時代的 不安을 위로할 수 없다. 萬 사람의 뜨거운 심장 속에는 어떠한 慾求의 피가 끓으며 萬 사람의 얽혀진 뇌 속에는 어떠한 錯亂의 고뇌가 험뎠거리느냐. 이 不安이 고뇌를 견져주고 이 狂亂의 피물을 녹여줄 把持者는 그 누구뇨. 「力的 藝術」을 가진 者이며 「力的 詩」를 읊는 者이다. 가장 敬虔한 태도로 강하고 뜨거운 그 곳에 관조하여 冥想의 境界를 넘어선 꿈틀꿈틀한 굵다란 線이 뛰는 듯한 하얀 종이에 시킴한 墨을 적어 擘大의 筆을 두른듯한 그러한 把持者라야 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 우리 文壇

엔 이러한 소설가가 없으며 이러한 시인이 없다.

이로 미루어 볼 때, 月灘의 詩論이 石松의 「力の 詩」로부터 발단되었을 가능성은 농후하다. 가령 引用文 속에서 「力の 藝術」 혹은 「力の 詩」가 빈번하게 등장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歌價의 戀愛文學, 微溫的의 寫實文學」이 石松의 「美的 詩」와 一致되는 개념이며, 또한 「가장 敬虔한 태도로 강하고 뜨거운…꿈틀꿈틀한 굽다란 線」이 암시하는 뜻도 石松의 「詩의 廣大함, 위대함」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石松의 휘트먼 수용의 결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깨닫고 있었던 民衆詩의 方向이거나 自由詩의 운동에 기여한 바 이상의 그보다 더욱 중요한 측면에서의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적은 石松이나 月灘의 시론이 신경향파 시론과 결부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月灘의 같은 글에서는 현재 日本에서 격렬한 투쟁 중에 있는 무로 藝術對 부류 藝術이 조만간 우리 文壇에서도 야기될 것이나, 그에 대한 어떤 판단도 내릴 수 없다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石松의 「力の 詩」는 月灘을 거쳐 八峰으로 이어지면 意外의 反應을 일으켜서, 그것이 신경향파 시론에 한걸음 接近하게 된다.

兄의 逃避的 咏嘆調의 詩가 一轉期를 劃하여 現實의 強硬한 熱歌되기를……
兄이 開闢에서 〈力の 藝術〉이라고 부르짖은 것이 兄의 詩歌 뒤에 나타나기를…
兄과 懷月의 도리화 부루구름한 象牙塔 속의 영탄이 열을 떠워오기를 비는 이것을 생각한다. 지금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 수 없습니다. 민중의 인도자 盧鶴에 대한 전쟁 제 1선에선 戰卒의 두 어깨가 무거운 것이외다.³⁾

이 글이 1923년 3월 八峰이 귀국하기 직전 月灘에게 보낸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엄두에 둔다면, 이 편지의 내용이 어느 정도 골격을 갖춘 시론이라고 판단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왜냐하면 八峰은 일본에서 이 때에 이미 사회주의 운동을 체험하고 난 후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八峰이 강조하는 내용도 「力の 詩」에 대한 시론이 핵심을 이루고

3) 朴鍾和, 「白潮時代の 그들」(靑苔集, 永昌書館, 1942.), p.135.

있다. 그렇지만 이 경우 石松과 月灘과는 성격을 달리 한다. 八峰의 「力の詩」는 石松에서 나타난 단순한 시의 건강성이나 月灘에서의 남성적인 뜨거움과는 次元을 달리하는 시론으로 변모하고 있는 점이 특기할만하다. 그것은 八峰에 있어서 「現實의 強硬한 熱歌」로 규정되며, 「民衆의 引導者」, 「虛僞에 대한 투쟁」을 강조함으로써, 이로부터 그의 시론은 民衆詩論의 목표를 띠게 되기 때문이다.

以上에서 筆者는 경향과 시론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金石松의 역할에 관해서 주로 휘트먼의 민주주의 시론과 결부시켜 논술했다. 여기서 도출된 감정적인 결론은 石松의 민주주의 시론이 신경향파 시론의 발흥에 있어서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게 된다. 그렇다면 신경향파 시론 형성과정에 있어서 石松의 시론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성을 지녔는가. 그것은 石松의 「力の詩」, 다시 말한다면 「시가 광대함, 위대함, 현실을 읊는다.」라는 점으로부터 유래할 것이다. 이와같은 石松의 시론이 「廢墟」, 「白潮」派 등이 感傷과 詠嘆에 젖어 있을 무렵 反象徵主義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섰던 신경향파 시론과 쉽게 접촉되었으리라 하는 추측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3

金石松이 남긴 작품의 수효는 1920년 발표된 「民衆의 公僕」(동아일보, 1920. 4. 2)과 「離鄉」(개벽, 6호, 1920. 12.)으로부터 시작 해서 1925년까지 발표된 것만해도 무려 100여편을 상회한다. 그는 1925년 詩作을 일시 중단했다가 1929년 4월 「朝鮮之光」 84호에 「驚蟄三章」⁴⁾을 발표함으로써 다시 詩를 쓰기 시작했으나 이후에 발표된 작품은 量으로는나 質로서도 별

4) 「驚蟄三章」에는 「太陽을 웃는다.」, 「피작난」, 「나의 손을 잡지 마라.」3편이 수록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序言도 붙어있다. 「시가와 남이 된지 어언 4·5년간 아무리 둔감한 개구리이기로서니 이 봄이 경칩이야 또 넘길 수 있으랴. 말배우는 어린애 썩치고 못개구리 합창에 술적 섞어볼까.」

로 문체 삼을 바가 없다. 그의 작품 중에서 당시에 이미 비평의 대상으로 빈번하게 등장한 바 있고, 또한 오늘날까지도 논의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작품들을 열거하면, 「無產者의 絶叫」(1921. 6), 「햇빛못보는 사람들」(1922. 2), 「숨쉬이는 木乃伊」(1922. 3), 「不純한 피」(1923. 7), 「아, 지금은 새벽 네시」(1924. 11), 「白骨의 亂舞」(1925. 1) 등을 꼽을 수 있다. 먼저 「無產者의 絶叫」를 들고, 이와 「햇빛 못보는 사람들」, 「숨쉬이는 木乃伊」를 비교하면서 石松의 詩에 대한 경향의 推移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는 無產者이다!

아무것도 갖지 못한

그러나 나는

黃金도, 土地도, 住宅도,

地位도, 名譽도, 安逸도,

아! 나는 願치 않는다!

사랑도, 家族도,

社會도, 國家도,

現在의 아무것도

아! 나는 阻礙한다!

그리고 오직

未來의 合理的 生活을

아! 나는 要求한다.

(無產者의 絶叫)

石松의 시작품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는 관념적 서술과 생경한 시어의 빈번한 노출로 말미암아 예술적 형상에 실패한 점에 있다. 「無產者의 絶叫」도 여기에 예외가 아닐뿐더러, 오히려 이 작품에서 그린 현상은 극도에 달한 감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각별히 주의를 요하는 것은 平等思想이 시의 주제로써 등장하기 시작한 점에 있다. 石松의 平等思想은, 그것이 휘트먼과의 관련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었기도 하겠지만, 「사람에게는 階級이 없다.⁵⁾」는 기

5) 金石松, 「階級을 위함이나 文藝를 위함이나」, 《매벽》 56호, 1925. 2.)

본 입장에서부터 크게 逸脫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먼저 휘트먼의 시론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民主文藝小論」으로부터 검토하기로 하다.

階級과 階級の 對峙가 아니오. 機會均等, 生存平等에 대한 絶叫요, 理想이다. 다시 말하면 가령 貴族主義乃至 資本主義와 對戰하는 事實에 있어서는 階級戰의 투쟁과 共通點이 많으나 그 싸움의 目標라든가 理想은 그와 다른 點이 많다.……데모크래시는 어느 意味로 보아 共生主義요 拘攙主義이며, 데모크래시의 理想은 現在보다도 未來에 있고 데모크래시의 詩人은 說明보다도 豫言을 많이 하게 된다.⁶⁾

여기서 보듯이, 石松의 平等思想은 貴族主義 文藝에 대한 계급투쟁의 일면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 平等思想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가 民主主義的 理想의 實現에 있다는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다. 平等思想이란 일종의 未來主義에 대한 기대이며, 理想이라 정의될 수 있다. 그러므로 「無產者의 絶叫」는 無產者의 분수에 맞지 않는 과욕이나 특정한 이데올로기, 共同體 意識도 배제되며, 단지 未來에 대한 合理的인 生活의 영위와 人間의 權利를 보장하는 물질적 정신적 회복을 전제로 한 시민생활이 기대될 뿐이다.

그러나 詩 「햇빛 못보는 사람들」(1922. 2)에 오게 되면, 平等思想에 대한 理想과 社會的 現實 사이의 괴리로 말미암아 詩人의 사상은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햇빛은 누리의 구석 구석에
빈틈없이 비추는 햇빛이다.
오! 그러나 그러나
햇빛 못보는 사람들!

.....

새벽별을 머리 위에 이고
저녁달 그림자를 밟으며
저마다 바쁜듯이 돌아다니는

6) 金石松, 「民主文藝小論」(生長 5호, 1925. 5)

새하얀 친구들의 얼굴이어
 오—햇빛 못보는 얼굴들이여

.....
 그대들의 次序대로 記錄하면
 官吏, 富者, 有識階級,
 商人, 小作人, 勞動者—
 나의 마음대로 記錄하면
 개인놈, 자는놈, 일하는놈, 조는놈—

.....
 오! 친구여! 햇빛 못보는
 世上에 阻礙받은 친구들이어!
 우리는 장차 어찌할거나!
 해와 달을 깨치어 버릴가!
 해와 달을 새로 만들가!

(햇빛 못보는 사람들)

여기서 총 14연의 長詩 중 편의상 1, 3, 5, 14연의 4연만을 引用해 놓고 볼 때에도, 이 作品의 主旨가 「民主文藝小論」에서의 다음 내용과 직접적으로 대응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데모크래시는 太陽이다. 宇宙의 구석구석에 그 光明을 高고고루 비추어줄 뿐이요. 아무 差別的 意味는 가지지 못한다. 데모크래시는 絶對의 抱擁이다. 美醜도 不計하고 善惡도 不關하고 모두 한결같이 抱擁한다. 마치 아버지의 사랑같이, 그러나 우리는 記憶할 必要가 있다. 아들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걱정하는 것을, 데모크래시는 絶對의 抱擁인 동시에 또한 絶對의 反抗이다. 데모크래시의 理想을 위해서 害로운 分子는 언제든지 어느곳에서든지 反抗을 받을 것이요. 이와같은 反抗은 마침내 抱擁의 理想을 實現하는 階級이 될 것이다.”

이와같이 「民主文藝小論」에서의 平等思想은 絶對絶命의 理念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全體를 말하는 데모크래시는 반드시 個體를 잊어서는 안된다.」⁸⁾는 命題에 石松의 詩論이 겪는 갈등이 있다. 다음 引用詩의

7) 上揭論文

8) 上揭論文

제 1 연부터 구체적으로 分析해보자. 「햇빛 못보는 사람들」의 제 1 연을 보면, 1, 2행 <햇빛은 누리의 구석 구석에 / 빈틈없이 비추는 햇빛이다.>의 平等思想에 대한 表現이 「民主文藝小論」에서의 「太陽이 우주의 구석 구석에 光明을 고루고루 비추어주는 公明正大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과 符合됨을 쉽게 알 수 있다. 民主主義 文藝의 特色이 形式的 自由와 人格의 平等에 있을진댄 여기서의 平等思想이 햇빛이 온 누리의 구석구석을 빈틈없이 비추듯이 신분의 高下貴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現實은 理想과 판이하다. 現實世界에선 平等思想이 실현될 수 없는 계층이 존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체로 이러한 主旨를 담고 있는 곳이 제 1 연 3, 4행으로부터 나타나 제 3 연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것은 <새하얀 친구들의 얼굴이어 / 오-햇빛 못보는 얼굴이여>에서처럼 공장 노동자이다. 이 詩는 제 4 연에 계속해서 <나는 疑心이 벌컥난다 / 그대들이 囚人이나 아닌가>라고 적고 있는데, 詩人의 노동자 계층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여기서 엿볼 수 있다. 그러나 石松의 계급의식은 詩 제 5 연이 暗示하고 있듯이, 우리가 통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계급의 구별을 따르지는 않고 있다. 例컨대 <그대들의 次序대로 記錄하면 / 官吏, 富者, 有識階級, 商人, 小作人, 勞動者 / 나의 마음대로 記錄하면 / 개인놈, 자는놈, 일하는놈, 노는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石松의 詩에서 계급은 존재할 수 없고, 구태여 구별할 수 있다면, <개인놈, 자는놈, 일하는놈, 노는놈>의 냉소적인 표현만이 등장한다. 그렇더라도 石松의 平等思想에 대한 理想과 現實 사이의 괴리는 끝내 좁혀질 수 없었고, 그것은 또한 엄연한 現實로서 詩人을 계속해서 하나의 강박관념으로 압박한다. 이 作品의 끝연이 詩人으로 하여금 이와같은 심정을 잘 表現해 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해와 달을 깨치어 버릴가! / 해와 달을 다시 만든가!>의 詩구가 暗示하는 바는 詩人의 平等思想에 대한 근원적인

회의가 아닐 수 없으며, 또한 시인의 피지배민족의 현실에 대한 지식인으로로서의 자세가 여기서 분명히 드러난다.

詩인이 쓰는 詩와 詩論은 어떤 경우 一致하기도 하며, 또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일종의 信念의 문제일 터인데, 石松의 경우 「햇빛 못보는 사람들」이 「民主文藝小論」과 대응되는 것은 前述한 바 대로 詩인의 信念이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동일한 경우를 우리는 「階級文學是非論」(개벽 56호, 1925. 2)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잘 알려진 바 대로 「階級文學是非論」은 朴英熙의 주도로 「개벽」誌에 特輯으로 발표되었던 것이며, 이 글에는 부루측 및 푸로측 인물이 각기 4명씩 나뉘어 계급문학에 대한 각자의 所見이 피력되고 있다. 石松의 所論은 그가 푸로측 입장을 옹호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八峰이나 懷月과는 달리 例의 「民主文藝小論」에서와 마찬가지로 平等思想과 階級思想 사이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계급이 없다. 士農工商은 직업의 區別이요. 사람 자체에 어떠한 계급을 짓는 原素가 되지 못한다.」⁹⁾라는 진술에서 확인되듯이, 石松의 계급사상은 平等思想의 범주 안에서 이해될 수 밖에 없는 限界內의 것이었다.

詩 「숨쉬이는 木乃伊」(1922. 3)에서 石松의 詩는 「無產者의 絶叫」나 「햇빛 못보는 사람들」보다 관심의 폭이 확대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시적 형상화의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성공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 나는 분다!
 숨쉬이는 木乃伊들
 「現代」라는 옷을 입히고
 「制度」라는 藥을 발라
 「生活」이라는 棺에 넣은
 木乃伊를 나는 분다
 그리고 나는

9) 金石松, 「階級을 위함이나 文藝를 위함이나」. (개벽, 56호, 1925. 2.)

나 自身이 이미
 숨쉬이는 木乃伊임을
 아! 나는 吊喪한다!

(숨쉬이는 木乃伊)

주지하다시피 木乃伊란 미이라를 두고 말하는 것이며, 본래의 형상을 보다 완벽하게 보존하였으되 生命이 없는 無生物體를 지칭한다. 그런데 이 詩의 제목이 단순히 무생명체가 아닌 「숨쉬이는 木乃伊」로 되어 있는 점은 그속에 시인의 삶을 지배하는 현실적 상황의 폐쇄성을 암시하고자 한 때문이었다. 그것은 시의 구조면을 보아서도 제 1연과 제 2연에서 主·客體 사이의 거리가 뚜렷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반해서, 제 3연에 오게 되면 詩人과 ‘숨쉬이는 木乃伊’ 사이의 일체화 현상에서도 그러한 사정은 충분히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 2연에 나타난다. <現代라는 옷을 입히고/制度라는 藥을 발라/生活이라는 棺에 넣은>이라고 表現된 것이 인간은 역사적 상황이나 사회적 제도 또는 경제적 기반 등 외적조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의 강조에 다름 아니다. 그러면 詩人이 앞서의 平等思想으로부터 역사 및 사회경제적 환경론을 중시하게 되었던 직접적인 계기는 어디에 기인하는가.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식민지 조국의 현실에 대한 지식인으로서의 투철한 인식의 결과라할 수 있다.

3.1운동으로부터 신경향파 출현에 이르기까지 지식인들 사이에 등장한 주요 관심사는 現實生活의 改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의 表明이었으며, 그 중 경제생활의 문제가 긴급한 과제이었다. 경제생활에서 우리와 직결되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물자의 결핍과 소득분배의 불균형으로 인한 즉 궁핍의 현상이라할 수 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日帝의 식민지 농지 수탈 정책에 따른 국민 생활의 빈궁은 더욱더 가중되었으며, 게다가 도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악화, 이에 비례하는 임금수준의 저하 및 실업율의 증가 등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병리가 극도에 달해 있었

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20年代 우리의 文學이 빈궁의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으리라는 추측은 충분히 가능하다. 빈궁의 문제를 詩로서 발표한 대표적인 詩人의 하나에 石松이 있다.

石松은 「無產者의 絶叫」와 「햇빛 못보는 사람들」 등 비교적 초기작에 서부터 무산자와 도시 공장 노동자와 같은 빈민층을 등장시키고 있으며, 또한 그들에 깊은 애정을 쏟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빈민층에 대한 애정은 후에 그가 신경향파 멤버들과 제휴하여 파스쿠라를 결성시키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한다. 이점을 입증할만한 자료로는 八峰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는 본질이 소박한 민중시인으로서 자타가 인정하였을 만큼 일반 무산계급의 최하층에 동정하고 그들과 더불어 같이 노래하고 같이 춤추려고 하는 사람이었지 결코 부유한 재산가들의 생활감정과 사고방식엔 가까이 가려던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 도리어 거기에 叛旗를 높이 들었던 사람이다. 그러기에 1924년 가을에 그는 솔선해 마음 맞는 文人들끼리 구름을 조직해 보고자 주장해 마침내……파스쿠라라는 단체를 이루었다.¹⁰⁾

그러나 石松의 詩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해결 방법의 하나로서 20년대 소설에서 찾아볼 수 있는 反社會的 行爲, 즉 살인과 放火, 파괴 등의 극단적인 방법이나 계층적인 이념의 문제 따위로 대치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앞서 지적한 바 있듯이, 《햇빛은 우리의 구석 구석에 / 빈틈없이 비추는 햇빛이다.》을 실현하기 위한 平等主義의 理念을 추구한다는 점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

20년대 小說에서 가난의 문제를 검토할 때에 등장하는 세 樣相은, 1) 가난을 삶의 한 보편성으로 보는 입장, 2) 식민지 상황과 결부된 病理의 조건으로 보는 입장, 3) 계급이념의 측면에서 보는 입장 등으로 나타난다.¹¹⁾ 만일 이 세 가지 양상이 20年代 詩作品에서도 적용이 가능하

10) 金八峰, 「生長」(思想界, 1960, '40年間の 文藝誌')

11) 李在鉉, 「現代小說과 가난의 리얼리즘」, (韓國學報, 제10호, 1978, 봄호), p.46.

다면, 한국시에서의 가난의 문제는 이 셋 중 어느 것에 부합되는가. 물론 각 함은 확일적으로 독립된 성격을 지닐 수 없고 보다더 상호 보완적으로 교차될 경우도 없지 않다. 먼저 가난의 현상이 나타나 있는 신경향파와 푸르詩에서 例를 들고 검토해보자. 石松 이후에 빈민계층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作品으로 尙火의 「街相」(1925.5)에 수록된 「구루마꾼」, 「옛장사」, 「거러지」의 세 편과 柳赤駒의 「女職工」(1926.4)이 잘 알려져 있다. 우선 여기서 주목되는 사실은 첫째, 이 두 詩人의 作品이 石松의 作品과 상당한 시간상의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 둘째 시기가 카프 결성의 전후이지만 모두 方向轉換 이전의 作品이라는 점이다. 尙火詩의 신경향파와의 접촉은 두 양상의 詩에서 발견되는데, 하나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1926.6)와 「저무는 늘 안에서」(1928.7)이며, 다른 하나는 「街相」(1925.5)이다. 前者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첫行과 끝行의 〈지금온 남의 땅—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와 〈그러나 지금은—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를 빼버린다면, 물론 신경향파 시가 민족감정 및 저항의식과 무관한 것이 아니지만, 노동생활의 즐거움, 희망과 사랑, 굿센힘 등의 시풍을 지니고 있으며, 〈저무는 늘 안에서〉는 〈아 그들의 흘리는 땀방울이/세상을 만들고 다시 움직인다.〉에서처럼 역시 노동생활의 즐거움과 굿센힘을 나타낸다. 이에 反해서 「街相」의 作品은 白鐵도 「푸르문학의 처지에서 보면 진정한 주인공이 될수 없는 시대낙오의 존재들이다。」¹²⁾라고 지적했듯이, 단순히 빈민계층만을 소재로 삼고 있는 점이 다르다. 柳赤駒의 「女職工」은 보레다에프의 「베짜는 새악씨」¹³⁾를 연상하면서 쓴 作品으로 추측되지만, 이 양자는 詩의 분위기가 판이하다.

목도메다 치여죽은 남편의 상식상을 미처 치지도 못하고 그대로 달려온 애절한 아낙네의 가쁜 숨소리야말로……

(제 2 연)

12) 白鐵, 朝鮮文學思潮史, 現代篇(白楊堂, 1949.), p.43.

13) 毒人, 「勞農露西亞의 詩壇」(中外日報, 1927. 11. 10).

柳赤駒의 작품에서는 보테다에프의 <봄에 언제나 빛나는 자주빛의／새악새는／귀창이 떨어질듯한 베를에서／눈이 부시는 베를 잔다／오! 얼마나 戲弄하고 얼마나 迷惑하는지>에서처럼, 노동생활의 즐거움이나 여직공의 굶주림 등은 찾기 어렵고, 단지 남편 잃은 여직공의 설움만이 나타난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尙火와 柳赤駒의 詩는 경제적 환경으로서의 가난의 문제가 계급이념의 각도에서 뚜렷하게 드러난 바는 없다. 그러므로 詩에서의 가난의 문제는 가난이 삶의 한 보편적인 현상이거나 특별히 식민지 상황과 결부될 수 있는 사회적 病候일 따름이다.

4

이상 石松의 시와 시론을 통해서 신경향파와 어떻게 관련되었는가에 대해서 고찰했다. 그 내용을 다시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石松의 문학은 1920년 시와 시론을 통해서 활동하기 시작해서 1925년 카프의 결성과 더불어 일단 끝이 난다. 당대에 풍미하던 도피적 퇴폐적인 경향과는 달리, 石松의 文學은 「力の 詩」을 강조함으로써 月灘과 八條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바 있다.

둘째, 石松의 詩 「無產者의 絶叫」와 「햇빛 못보는 사람들」은 그의 詩論 「民主文藝小論」과 직접적으로 대응된다. 石松의 詩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방향은 平等思想의 實現에 목표를 두고 있었으나, 貴族主義 文藝에 대한 계급투쟁의 일면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점에서 石松의 시와 신경향파는 시로 관련을 맺는다.

셋째, 石松은 「無產者의 絶叫」와 「햇빛 못보는 사람들」 등과 같은 초기작으로부터 빈민층에 지대한 관심을 경주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은 후에 파스쿠라를 결성하는데 중요한 몫을 하게 된다.

石松의 시와 시론에서 어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신경향파 시운동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양자의 관련은 「이 시인의 민주주의적 사
풍이……한 힘있고 굿세인 특색을 묻하고 있었을 뿐아니라, 이 경향이
진실로 후일 신흥계급시 운동 발흥의 한 자극이 되어 있는 곳에 그 선구
적, 의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¹⁴⁾와 같은 당대 批評家의 글에서도
입증될 수 있다. 그러나 石松의 人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극히
限定되어 있다. 단지 八峰의 石松에 대한 斷片的인 회고와 40年間の 文
藝誌 特輯, 「生長」 편을 통해서 그의 人間性 및 文學活動에 대한 片鱗만
을 얻어 보는데 만족할 수 밖에 없다. 첫째, 石松은 패기와 투지로 등
쳐진 意志人이었으며 또한 信念人이었다. 그가 어느 정도의 信念人이었
던가는 1924년 東亞日報에서 朝鮮日報로 직장을 옮겨갔을 때 그를 따라
거취를 함께 한 동료가 수십명에 달했다는 일화에서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또는 그는 日帝治下의 자유언론 수호¹⁵⁾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東
亞日報創刊에 즈음한 祝詩 「民衆의 公僕」을 발표할 정도의 당대의 진보
적인 신문기자이었으며 또한 대표적인 지식인 중의 한 사람이었다. 둘째
로 그는 자신의 發議와 主唱에 의해서 파스쿠라를 결성했고 이어서 천
도교 기념회관에서 「문예강연 및 시각본 낭독회」의 개최 및 진행을 맡
아볼 정도로 신경향파 운동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1925년 카프 결성
시에는 불참하고 스스로 잡지 「生長」의 발간에 진력한다. 셋째로 石松이
신경향파운동에 어느 정도까지 정열적이었던가는 다음의 逸話에서도 엿
볼 수 있다. 八峰의 「프로르나드·상티망탈」이 「개벽」誌에 발표된 직후
그가 어느 좌석에서 八峰을 만나자 「불살러 버려야 할 것을 모두 불살
러 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영원한 불씨가 되어야지…팔봉…팔봉…자꾸
타라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꺼워할 정도로 열광적이었다.

14) 朴八陽, 朝鮮 新詩史概說. (朝鮮日報, 1929, 1, 10.)

15) 金石松, 「이권화한 신문판권 언론자유」(東光, 35호, 1932. 7.)